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고3 연세대(인문) 유형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가) 자연 상태에서의 전쟁은 인간 존재의 타고난 정념(情念)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가공할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여 사람들이 그 권력이 가하는 위협에 공포를 느껴 계약을 이행하고 자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칼’을 동반하지 않은 계약은 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생명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집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판단과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들은 공통의 적이나 상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해 그 어떠한 방위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힘을 최고로 발휘하고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의견이 가지각색일 경우에 그들은 상부상조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면서 쓸데없이 내부 대립만 심화시키게 되고, 끝내는 스스로 무력해지고 만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협력이 아주 잘 되는 집단에게조차 매우 쉽게 제압당하게 되며, 심지어 공통의 적이 없을 때라도 각자의 개별적인 이해(利害)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게 된다. 물론, 그들 대부분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권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의를 지키고 자연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권력에 대한 복종 없이도 서로 간에 평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시민 정부도 어떠한 국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의나 합의가 아니라 정념에 따르는 맹목적인 자기보존 법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상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이 ‘칼’을 소유한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와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마치 인간들 각자가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권리를 그 인격체에 완전히 양도하고 그의 활동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이 그러한 인격체에 통합 내지 통일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격체를 ‘국가’라 부르고자 한다. 그 인격체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지상의 신(神)’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 인격체가 모든 개인이 그에게 부여한 강대하고도 전능한 권력과 힘을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무한한 자기보존 경쟁을 종식시키려는 하나의 통일된 의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나)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can be extended into what Robert L. Trivers (1971) has called reciprocal altruism. The paradigm offered by Trivers is good samaritan behavior in human beings. A man is drowning, let us say, and another man jumps in to save him, even though the two may not even have met previously. The reaction is typical of what human beings regard as "pure" altruism. However, upon reflection one can see that the good samaritan has much to gain by his act. Suppose that the drowning man has a one-half chance of drowning if he is not assisted, whereas the rescuer has a one-in-twenty chance of dying. Imagine further that when the rescuer drowns the victim also drowns, but when the rescuer lives the victim is always saved.

If such episodes are extremely rare, the Darwinist calculus would predict little or no gain to the fitness of the rescuer for his attempt. But if the drowning man reciprocates at a future time, and the risks of drowning stay the same, it will have benefited both individuals to have played the role of rescuer. Each man will have traded a one-half chance of dying for about a one-tenth chance. A population at large that enters into a series of such moral obligations, that is, reciprocally altruistic acts, will be a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generally increased genetic fitness. The trade-off actually enhances personal fitness and is less purely altruistic than acts evolving out of interdemic* and kin selection.

*interdemic=interpopulation

(다) 동물이 인간이나 동물로부터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또는 그 동물의 호의를 얻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설득 방법이 없다. 강아지는 어미에게 꼬리를 치며 아양 떨고, 애완용 개는 먹을 것을 원할 때 온갖 아양을 떨어 식사중인 주인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사람들도 자기의 동료에게 이와 같은 수법을 때때로 사용한다. 남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사람은 남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온갖 아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할 만큼의 시간 여유를 가지지 않는다. 문명사회에서 그는 항상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그는 평생에 몇 사람의 친구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다른 동물류에서 각각의 동물은 성숙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오직 동료의 자비에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의 요망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의가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의의 대부분을 상호간에 얻어낸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라) ‘자발적 기부행위’에 대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험 참가자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는다. 참가자들은 제공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가질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의 기부 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공동계좌로 기부된 금액은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만약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공동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실험에서 공동계좌에 기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협력을 의미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상황을 평가하시오.

기업은 근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에 대해 기업이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개선, 환경 보호,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강화 등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경영주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많은 양의 상품을 파는 데만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노동, 환경, 제품의 품질, 가격, 공정 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어떤 국가에서 제시문 (라)의 연구를 활용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으로 작동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2-(2) 제시문 (라)의 연구결과는 아래의 자료와 같다. 제시문 (나)와 (다)를 이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설명하시오.

<자료 1>

공동계좌 기부비율($\frac{\text{기부총액}}{\text{초기제공총액}}$)

	상황 1	상황 2
의사소통 원활	47%	31%
의사소통 어려움	41%	21%
전체	44%	26%

상황 1 : 서로 잘 아는 같은 지역 거주민들로 진행

상황 2 : 안면이 없는 다른 지역 거주민들로 진행

<자료 2> 국가별 공동계좌 기부비율 평균

공동계좌 기부비율($\frac{\text{기부총액}}{\text{초기제공총액}}$)

